

중소·벤처기업 전용 증권시장

-프리보드 따라잡기

기업의 창업과 직접금융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미국의 OTCBB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은 한 국가의 주식시장 전체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와 맞물려 비상장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수요와 유동성 제고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호에서는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증권시장인 프리보드 시장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프리보드' 란?

→ 처음 접하는 분들은 '스노보드'를 연상하는데, 프리보드(FreeBoard)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개설·운영하는 새로운 증권시장이다. 'Free'라는 그 의미대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규제를 최소화한 저비용의 시장을 말한다.

Q 프리보드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2004년 12월 정부는 벤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등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프리보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제도개선을 거쳐 2005년 7월 13일 출범하게 되었다.

Q 프리보드와 코스닥의 역할이 중복될 것 같은데 프리보드의 역할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는 흔히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분류한다. 이 중 성장단계와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은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지원이 바람직하며, 그래야만 효율적 자금배분이 가능하며 벤처캐피탈 등 초기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등 원활한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효율적으로 달성된다.

중전에는 코스닥시장만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 13,986개사중 329개만이 상장되어 있는 통계(08년 1월말 기준)에서 나타나듯이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즉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의 공백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프리보드가 담당한다. 프리보드는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 공시사항 등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였다.

Q 기업이 프리보드에 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 무엇보다도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초기투자자는 투자자금의 회수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증권업협회의 시장홍보, 기업 IR 지원 등을 통해 기업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법률, 회계 등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코스닥 상장시에도 우대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Q 투자자가 프리보드 지정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절차나 투자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 매매를 위한 계좌개설부터 결제까지 코스닥시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증권회사에 개설한 위탁계좌로 거래가 가능하며, 매매주문은 전화 또는 HTS를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기업은 그 특성상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으로 향후 기업 성장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 위험도 따른다. 또한, 시장 규제를 최소화한 시장특성상 투자시에는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철저한 기업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Q 신정부는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 개 육성 및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적의 제도적 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으로서 프리보드의 향후 추진계획은?

→ 프리보드 출범 이후 일정 부분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외에도 경쟁매매제도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업협회는 정책당국에 매매제도 및 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Freeboard Member

21세기 인터넷 강자, 케이엔디티앤아이주식회사 www.kndt.co.kr

케이엔디티앤아이(주) 1991년 설립된 케이엔디티앤아이 주식회사(대표 이의중)는 21C 첨단기술인 비파괴기술검사, 장비개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며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비즈니스의 혁명을 이루고자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비파괴기술검사(NDT), 장비개발, 위험기반검사 분야 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인터넷 콘텐츠 및 솔루션을 접목시켜 NDT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트를 구축했다. 비파괴사업본부와 원자력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

■비파괴사업본부

- 기술용역
 - 비파괴기술검사
 - 비파괴검사관련 기술자문
- 관련장비개발
 - 방사선투과사진 관찰기
 - 방사선량 측정장치
 - 외전류를 이용한 관결함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
- 기술도입
 - 위험기반검사 컨설팅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위험설비에 대한 점검(비파괴검사의 적정성 평가)
 - 소프트웨어 : T-OCA, T-REx시리즈(M, T, P, PS & SV)

■원자력사업본부

- 방사선관리
 - 방사선투과검사(Radiographic Testing)
 - 초음파탐상검사(Ultrasonic Testing)
 - 자기탐상검사(Magnetic Particle Testing)
 - 액체침투탐상검사(Liquid Penetrant Testing)
 - 누설검사(Leak Testing)
 - 외류탐상검사(Eddy Current Testing)



- 원자력 시설 규제해제
- 환경 방사능 측정/분석
- 계측 및 화학분석
- 원자력 방사화학분야 학술용역
- 특수장비 개발

■비파괴검사 관련 기술자문

비파괴검사 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인정과 관련한 제반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ASME CODE 및 전력산업기술 기준에 이한 품질자격인증의 취득을 지원한다.

- 비파괴검사원 교육 및 자격인정(NDE Personnel & Qualification)
- 품질자격인증 지원

세계제일을 향한 쾌속질주, 우성아이비 www.zebec.co.kr

우성아이비 (주)우성아이비(대표:이희재)는 1983년 설립 이래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고가의 보트를 생산하여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최고의 제품을 통한 고객만족”이라는 모토로 지난 20년 동안 국내 수상레저산업 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한 (주)우성아이비는 국내외 수상레저문화의 발전과 함께 한 신제품 개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트센터, 물에서 15m까지 나는 플라이피쉬, 어뢰 부양장치, 경주용보트를 비롯하여 정부로부터 기술혁신과제수행업체로 지정되어 12인승 인명 구조용 특수보트 개발에 이르기까지 150여 종의 보트와 부품을 직접 개발했다. 특히 ZEBEC(제벡)보트는 디자인에서부터 생산, 검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을 국제규격과 ISO SYSTEM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안정성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높아 래프팅보트는 현재 미국등 공인기관의 테스트를 거친 후 상업용, 경주용, 선수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구명용보트는 세계 13개국에서 군용 및 구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제 3공장과 4공장을 오픈하였으며, 1년에 4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5대 보트생산업체의 규모를 자랑한다.

주요사업내용 : 경기용 고무보트 및 부대기구 /INFLATABLE SYSTEM & BOATS/인명구조용 보트 및 WORK 보트/SPORTS BOAT 및 레저보트/구명조끼/보트 부자재 /15인승 고속단정 제조 판매